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초혼 (김소월): 1P  
이별가 (박목월): 1P
- [02] 노정기 (이육사): 3P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3P
- [03]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악): 5P  
흑백 사진 - 7월 (정일근): 5P
- [04] 성탄제 (오장환): 7P  
새 1 (박남수): 7P
- [05] 장수산 1 (정지용): 9P  
고고 (김종길): 9P
- [06] 거문고 (김영랑): 11P  
굴동리 일박 (곽재구): 11P
- [07]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백석): 13P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13P
- [08] 화체개현 (조지훈): 15P  
누에 (최승호): 15P
- [09] 낙화 (이형기): 17P  
과목 (박성룡): 17P
- [10] 산 (김광섭): 19P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준관): 19P
- [11]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신경림): 21P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고재종): 21P

[수특 82p, 해설 24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招魂)」 -

(나)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카노 뒤편카노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뒤편카노 뒤편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

[24001-0063]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점층적 구조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24001-0064]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 스스로 찾은 수직적 공간이고, ㉡은 화자가 타의에 의해 도달하게 된 수평적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태도가 급격히 전환되는 공간이고, ㉡은 화자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가상적 공간이고, ㉡은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는 실제적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과의 소통이 시도되고 있는 장소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장소이다.

[24001-0065]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소월의 「초혼」과 박목월의 「이별가」는 모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① (가)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에는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처절한 슬픔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화자가 ‘뒤탈카노’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행위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나)의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는 이승에 있는 화자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과 (나)의 ‘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에는 모두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와 (나)의 ‘이승 아 니른 저승에서라도’에는 모두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수특 85p, 해설 26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니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

\* 포범: 베로 만든 돛.  
\* 짱크: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A]

[24001-0066]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물과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④ ㉣: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반복적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접속어를 통해 화자가 주체적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4001-0067]

2. (나)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고 있다.
- ②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의식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24001-0068]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 기&gt;—

이육사의 「노정기」와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육사의 「노정기」에서 ‘노정’이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정기’라는 제목은, 화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한편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에는,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과정이었음을 아프게 자각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이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에는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는 아픈 자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나)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깨어진 뱃조각’과 (나)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와 (나)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에는 모두 화자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수특 88p, 해설 27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살개 짖는 소리

㉠ 눈보라에 얼어붙는 선달 그믐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A]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 등대에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 밤은 알뜰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아롱범: 표범.

\*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마우재 말: 러시아 말.

\* 귀성스럽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나)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  
오르고 또 그 위 ㉠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  
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  
면에 담아 씬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  
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

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  
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뻗뻗뻗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등  
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B]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  
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정일근, 「흑백 사진-7월」-

\* 오수: 낮에 자는 잠.

[24001-0069]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계절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A]는 활유법을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B]는 활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자연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70]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이다.
- ② ㉠은 화자의 소망을 환기하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존재이다.
- ③ ㉠은 화자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④ ㉠은 화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존재이고,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아픔을 해소하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아픔을 심화하는 존재이다.

[24001-0071]

3. (가)와 (나)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삽살개 짚는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나)의 ‘착한 노래’는 화자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 ② (가)의 ‘얇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드는 ‘밤’은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고, (나)의 ‘내 유년의 7월’은 화자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③ (가)의 ‘부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표출되는 현재의 공간이고, (나)의 ‘넷가’는 화자가 보냈던 유년의 평화로움을 보여 주는 과거의 공간이다.
- ④ (가)의 ‘하얀 눈’은 화자가 동경했던 삶을 묘사하고, (나)의 ‘반짝이는 햇살’은 이상을 실현한 화자의 밝은 미래를 묘사한다.
- ⑤ (가)의 ‘날고 싶어’에는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나)의 ‘달아나지 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하게 수용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24001-0072]

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 기&gt;—

고향은 인간이 유년을 보내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고향은 그곳을 떠난 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장소이며,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고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거나 현실의 삶이 힘겨울수록 고향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며, 작품 속에 복원되는 고향은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곳으로 재현된다. 고향에서의 유년기 체험은 대개 회상과 기억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부여받으며, 혈연적 유대감이나 공동체적 삶의 모습, 혹은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은 고향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화자가 현재의 삶에서 겪는 힘겨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는 화자가 떠올린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귀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는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자연에 대해 화자가 가진 친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는 화자가 유년 시절 고향에서 혈연적 유대를 매개로 하여 정서적 충만감을 얻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수특 91p, 해설 29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 밤 이슬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 잠들 줄 모르며 쫓는 새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나)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격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대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24001-0073]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4001-0074]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밤새 꺼지지 않는 ‘햇불’은 사슴을 노리는 포수의 추격이 집요함을 나타낸다.
- ② ㉡의 ‘표범과 늑대’는 포수가 힘센 짐승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③ ㉢의 ‘새’와 ‘약초’는 어미의 소생을 바라는 어린 사슴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④ ㉣의 ‘노래’는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 세계에 대해 저항하려는 새의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
- ⑤ ㉤의 ‘체온’은 연약한 존재인 새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24001-0075]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가)에서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중을 유린하는 일제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조선 민중이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순수성을 지닌 자연물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나)에서는 자연물이 강하고 포악한 존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① (가)의 ‘어두운 숲’과 ‘어두운 골짜기’는 자연물이 희생당하는 살육의 공간을, (나)의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은 순수한 자연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② (가)의 ‘포수’는 조선 민중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제를, (나)의 ‘포수’는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로군.
- ③ (가)의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것은,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으므로 어린 사슴만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로군.
- ④ (나)의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도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⑤ (나)에서 포수가 쏘는 것이 ‘순수’가 아니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물이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수특 94p, 해설 30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술이 베어짐  
직도 하이 ㉠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드렁 돌아옴 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뱃새도 울지 않아 ㉡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  
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  
다? 윗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  
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 별목정정: 「시경(試經)」의 ‘소아(小雅) 별목(伐木)’ 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쟁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 \*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흰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新綠)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흰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4001-0076]

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현대 일상어에서 잘 안 쓰는 어미를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연쇄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4001-0077]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향수에 잠기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회상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 ② ㉠은 화자가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자괴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③ ㉠은 화자가 경험을 청자와 공유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이다.
- ④ ㉠은 화자에게 후회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고, ㉡는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인내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고대하는 대상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 <보기>를 바탕으로 3번과 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가)와 (나)는 산(山)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는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일제 강점기 말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을 담은 시이고, (나)는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경지를 언급함으로써 속된 것들과 차별화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시이다. 한편, ㉡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24001-0078]

3. ㉠와 관련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조찰히 늙은 사나이’로 지칭되는 ‘윗절 중’이 승패에 초연한 듯이 여유와 무욕의 태도를 보여 주는 모습은 장수산이 지닌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 ② (가)에서 ‘차고 울연히’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세속적인 감정이나 열망에 해당하는 ‘슬픔도 꿈도’ 버리고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
- ③ (나)에서 ‘그 높이’로 표상되는 고고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이전에도 북한산의 모습으로부터 세상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 ④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함이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윈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화자가 생각하는 고고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현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닌 것 같아.
- ⑤ (나)에서 ‘신록이나 단풍’ 또는 ‘안개’는 북한산이 고고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재들로 볼 수 있으므로, 속된 것들과 차별화되려는 화자의 정신적 지향을 상징하는 것 같아.

[24001-0079]

4. ㉡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성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
- ② ㉣: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절대 고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을 세속과 거리가 먼, 순수성을 간직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 ④ ㉢: 직유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산의 고상한 경지를 구성하는 요소인 봉우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산의 고고함을 훼손할 수도 있는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수특 97p, 해설 32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A]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B]

- 김영랑, 「거문고」 -

(나)

아흐레 강진장 지나  
장검 같은 도암만 걸어갈 때  
겨울 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 황진 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다갈대의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들린다  
㉡ 적폐의 땅 풍찬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  
스러져 가는 국운,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짙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근목피  
어느덧 굴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 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정다산(丁茶山)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흥흥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바람은 차고 바람 새에

툭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데

일박 사천 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쳤다.

- 광재구, 「굴동리 일박」 -

[24001-0080]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계절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81]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검은 벽’은 [B]에서 ‘이 밤’으로 전환되어 화자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의 ‘벽에 기대선 채’는 [B]에서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로 구체화되어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는 [B]에서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로 연결되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에서 ‘기린’이 ‘울지를 못’하는 것과 [B]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의 ‘영영’은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B]의 ‘맘 놓고’는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82]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광재구의 「굴동리 일박」은 현재 시점의 화자가 역사적 인물들, 즉 관군에 맞서 싸웠던 의적들과 강진으로 유배 간 정약용을 등장시켜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를 이해해 봅시다.

- ① ㉠: 현재 시점의 화자가 바다갈대와 바다오리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의적들이 봉기를 일으켜 관군들과 싸웠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② ㉡: 화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걸었던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있다.
- ③ ㉢: 실제로는 혼잣말이지만 역사 속 인물인 다산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여 힘든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거 다산의 행적을 현재를 살고 있는 지명 수배자의 죄목과 연결 지어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다산이 부정한 권력자로 인해 내는 고통의 신음 소리가 현재의 화자에게 들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4001-0083]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가)는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삼일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폭압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나)는 탐관오리의 학정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실학자 정약용을 떠올리며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① (가)에서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 운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거친 들 이리떼’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는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초근목피’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부릅뜬 눈’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탐관오리의 탐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바람은 차고 바람 세에 / 툇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을 받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산의 모습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수특 101p, 해설 34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渤海)를 여진(女眞)을  
 요(遼)를 금(金)을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 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 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닢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 흥안령을~송가리를: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맥과 강 등을 일컫음.  
 \* 장풍: 창포,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약용하고 단오에 창포물을 만들어 머리를 감거나 술을 빚음.  
 \*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멧돌: 멧돼지.  
 \* 솔론: 솔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에 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 보래구름: 보랏빛 구름.

(나)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距離)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붙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

\* 아방: 우리 쪽.

[24001-0084]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의인화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괴로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가 달라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적 공간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고 있다.

[24001-0085]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배반하고’와 ‘속이고’는 ‘나’가 북방을 떠난 원인이 타의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에서 ‘잔치’와 ‘울던 것’은 북방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감사와 원망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 ③ ㉢에서 ‘매끄러운 밥’, ‘단 샘’, ‘낮잠’은 ‘나’가 새로 정착한 곳에서 떠난 북방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에서 ‘돌비’가 깨지고 ‘가마귀’가 ‘긴 족보를 이루었’다는 것은 ‘나’가 북방을 떠난 지 매우 오래되었음을 드러낸다.
- ⑤ ㉣에서 ‘한 아득한 새 옛날’은 자신이 떠났을 때와 달라진 북방을 본 ‘나’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24001-0086]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나)에서는 ‘나비’가 시적 대상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자가 나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비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 ① 1연에서 나비가 보고 있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나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1연에서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과거에 당했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3연에서 나비가 더 날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뿔 ‘마일’은 나비가 도달해야 할 아방의 철조망까지의 거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
- ④ 3연에서 나비가 ‘바람’이 자꾸 분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나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5연에서 나비가 ‘벽’을 어설프다고 여기는 것은 나비가 ‘벽’을 언젠가는 넘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24001-0087]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래서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느끼고 있다. 작가는 이런 화자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의 화자는 상처 입은 나비가 아픈 상처를 딛고 결국 철조망을 넘으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비를 통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분단과 대치의 상황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① (가)에서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하고 살면서도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닳 없이 떠’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③ (가)에서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로군.
- ④ (나)에서 ‘생채기’를 입은 ‘나비 한 마리’가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종식된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나)에서 ‘모진 바람이’ 불고 ‘벽, 벽……’에 부딪치면서도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로군.

[수특 105p, 해설 36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들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太古)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 조지훈, 「화체개현(花體開顯)」-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변태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壞疽)\*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누에」-

\* 은수자: 숨어서 도를 닦는 사람.

\* 회저: '괴저'의 비표준어로,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병을 일컫음.

[24001-0089]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실눈'을 뜨고 꽃이 피는 것을 관찰하는 공간이고, ㉡은 누에가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존재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벽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공간이고, ㉡은 누에가 '은수자'가 되어 시련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짧은 여름밤'을 아쉬워하는 공간이고, ㉡은 누에가 '누에의 왕'이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촛불 한 자루'를 켜고 날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이고, ㉡은 누에가 '하늘 백성'이 되려는 꿈을 꾸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은 누에가 고통 속에서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는 공간이다.

[24001-0088]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상승의 이미지를, (나)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나)는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4001-0090]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멸과 탄생은 대자연의 법칙으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소멸은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생명의 탄생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생명 탄생 주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와 (나)는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는 생명의 소멸과 탄생이라는 대자연의 법칙으로부터 화자를 포함한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날갯짓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의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타자가 아닌 주체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의 신비와 감동을, (나)의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는 생명 탄생의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수특 107p, 해설 37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綠陰)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나)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薄質)\*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視力)을 회복한다.

- 박성룡, 「과목」 -

\* 박질: ‘메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로 만든 말.  
\* 멸렬: 찢기고 흩어져 완전히 형태를 잃음.

[24001-0091]

1.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지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24001-0092]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 성숙이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 ③ ㉢: 깊은 고통으로 인해 화자의 영혼이 맞이할 비극적 결과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상실과 조락을 환기하는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대상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4001-0093]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생장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알의 직선 운동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꽃이 피었다 지거나 잎이 무성했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유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도 적용됨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 보죠. 그럼 그는 살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나 변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 또한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로 이어질 것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에서 반복되리라는 걸 알 테니까 쉽게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가)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① (가)에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라는 시구는 꽃이 지는 모습으로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환기한 것은, '녹음'과 '열매'로 이어지는 순환적 리듬의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과목의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유추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삶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과목이 '박질'인 토양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들'에 가지가 출렁거리는 부정적 조건을 이겨 낸 점을 제시한 것은,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주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과목이 '모든 것이 떨릴하는' 부정적 변화에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한 기대와 연관 지을 수 있겠군.

[수특 110p, 해설 38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었댔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A]

산은 날아도 새등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었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피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나)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췌기 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 한데,  
 텃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B]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24001-0094]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특정 공간의 애상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A]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B]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A]는 독백의 방식을 활용하여, [B]는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95]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속에서의 삶처럼 자연에서의 삶도 고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산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가 두 계절이 공존하는 산의 모습을 보며 산의 포용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떡갈나무 숲이 곧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떡갈나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96]

3.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 기&gt;—

복잡한 세속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꾼다. 자연이 복잡한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존재하는 이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산은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어 경외감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나)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① (가)에서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 가는 것이나, (나)에서 ‘떡갈나무 잎’이 ‘뽕기 집이거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는 것은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자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뒹’기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자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가)에서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는 것은 경외의 대상인 산이 인간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나)에서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이 사라지고 ‘텃새만 남아’ 노래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생명력 넘쳤던 여름날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차분해진 가을 떡갈나무 숲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나)에서 하늘이 ‘나를 들이마’서 자신이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것은 화자가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수특 114p, 해설 40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까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A]

-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

\* 노령노래: 함경도 지방의 민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휘휘 후리거나, 제 **깜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동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동치를 타고 내려가, ㉤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땃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B]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4001-0097]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24001-0098]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A]와 달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촉발된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A]와 [B]에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확장하고 있다.
- ⑤ [A]에는 타인과 소통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B]에는 타인과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4001-0099]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화자로 하여금 세상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 ② ㉡: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세속적 공간이다.
- ③ ㉢: 화자가 편견에 휩싸여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던 공간이다.
- ④ ㉣: 감나무의 가지들이 옥심내지 않고 다른 가지들과 서로 공존하며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⑤ ㉤: 감나무의 실가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기대고 있는 존재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을 얻는 공간이다.

[24001-0100]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는 일상적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한데, 관찰 대상의 모습은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장자(莊子)」의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이라는 글귀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가)는 멀리서 세상을 바라볼 때와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의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성급하게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하고 있다. (나)는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감나무에 주목하여 중심을 잡으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 생명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고 생각했던 화자가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조막만한 새의 무게’는 감나무의 실가지가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이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는 삶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자 하는 성급함을 지닌 화자의 모습을, (나)의 흔들림이 없는 ‘주춧기둥 같은 등치’는 외부의 상황 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생명을 지탱하는 여유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속초에 내려와’는 타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계기가, (나)의 ‘젓은 바람’은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겨울 감나무의 모습을 주목하여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청각화한 것으로, (나)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